特色있는 中國 産業財産權制度에 대한 考察(1)

강 경 찬
〈특허심판원 심판관〉

Ⅰ. 가까이 다가온 中國

10년전만 해도 우리와 아주 먼 나라였으며 특정지역 국가로 지정되어 왕래하기도 용이하지 않은 나라.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다가온 中國이 되었다. '92년 韓·中간 수교이후 경제분야를 필두로하여 체육·문화, 안보·외교 등 여러분야에 있어 매우 활발한 교류가 전개된 결과 이제는 상호협력, 경쟁관계의 대표적 국가로 바뀌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중국방문길을 통해 선린우호의 관계를 뛰어 넘어 협력동반관계로 접어 들었다는 것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뜻깊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은 시점에 중국의 상품시장 매카니즘형성과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中國 산업재산권 제도의 特色點을 알아보고 우리제도와 차이점을 추려봄으로써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의 거점을 마련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해 미국·일본 등 주요선진국에 치중했던 우리들의 관심속에 中國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글을 쓰고자 한다.

Ⅱ. 중국을 알아야 하는 이유

우리들은 中國에 대해 막연히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그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분석·연구에는 소홀하였던 관계로 「중국 교실」에서 초급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竹의 장막" "잠자는 사자" "人口 많은 가난한 나라"라는 선입견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의 국내 외 상황과 각종 경제지표, 국제연구기관의 보고서등을 볼 때 중국을 알아야 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산업재산권업무에 몸을 담고 있는 필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10가지를 추려본다.

첫째, 2015년에는 경제규모 美國 추월 전망

OECD가 최근 발간한 "중국경제의 장기적 성

과"라는 연구보고서는 오는 2015년이 되면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誌도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사실, 중국의 경제성적표는 이미 최상위권에 달해있다. 중국의 지난 91년 이후 GDP 성장률은 연평균 11.2%, 외환보유고도 1천 4백억 달러로 세계 2위이다. 그러나, 주권을 돌려받은지 1년이 조금 넘은 홍콩까지 합하면 2천 3백억달러에 달해 세계 최대 규모이다.

이번 아시아 금융위기과정에서도 중국의 위상을 잘 나타내어 『중국이 위안(元)화를 평가절하 할 것이냐』는 국제금융계의 초미관심사였다. 이는 중국경제규모가 세계경제의 안전을 좌우할 만큼 이미 커졌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은 지구상 몇안되는 대규모 시장

세계인구의 약1/5을 차지하는 많은 인구와 러시아, 캐나다 다음으로 큰 면적을 가진 중국은 지구상 몇 안되는 대규모 시장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여러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미국에 이어 2위의 유망투자 대상국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 구매력지수기준 GDP가 아시아에서 1위로 부상되고 있다.

셋째, 소비혁명이 불고있는 中國

중국의 소비시장은 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라고 한다. 70년대 자전거, 재봉기, 시계로 대표되던 소비성향이 80년대초 컬러TV, 냉장고, 세탁기로 바뀌면서 1차 소비혁명이 일어났고, 90년대 들어와서는 비디오카메라, 가정용전화기, 에어콘 등 품목의 고급화를 위주로 제2차 소비혁명이 뒤를 이었다. 지금은 승용차, 고급주택 등을 구매하는 제3차 소비혁명이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00년대초에 이르기까지 주거관련 및 가정 설비용품에 대한 폭팔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도 나오고 있다.

넷째, 고급소비계층 6천만명 이상 추산

중국을 가난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잠깐동안의 여행이나 1인당 GNP(국민총생산)수준 등의 통계들이다. 그러나, 부자의 숫자는 매우 많아 고급소비계층들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계층으로 정의할 수 있는 집단은 5백만 고급관료, 향이상 독립채산 기업(40만여개)의 간부, 신흥집단 기업과 향진기업의 간부, 소득이 높은 개인기업가 등을 합하면 6천만명 이상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2010년 중국은 우리와의 최대교역국이 될 전망

현재, 한·중 두나라는 서로 3대교역국이다. 두나라 교역은 지난 92년 수교 당시 64억달러에서 매년 30%이상 급신장세를 보여 97년 2백37억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10년 중에는 중국이 우리와의 최대교역국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여섯째, 한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이 중국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세계 각국 중에서 한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이 중국이다. '98. 7월 현재 8백 47건으로 미국(4백 45건), 유럽(3백 57건), 중남미(1백99건), 러시아·동구(1백68건)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앞으로, 우리 기업

들의 중국 진출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업종은 다양화되어 제조업 위주에서 건설업, 서어비스업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홍콩·마카오의 귀속으로 경제영역 확대

「東方의 眞珠」라고 불리는 홍콩 - 1842년 아편전쟁 발발 후 영국과 청조간에 체결된 조차협정에 의해 영국이 이 지역을 통치하다가 지난 '97년 7월1일부로 중국의 특별행정구(SAR)로 편입되었다.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인 홍콩이 귀속됨으로 중국은 강력한 엔진을 단 거대한 항공모항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와 함께 '99년말에는 포루투칼령으로 있는 「도박의 도시」 마카오가 중국으로 귀속될 예정이다. 자유경제의 첨단을 걷는 2개의 도시가 귀속됨으로 중국의 경제영역이 보다 넓어져가고 역동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덟째, 華僑집단의 본토 투자확대

유태계와 어깨를 겨룰 유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 화교들의 중국본토를 향한 투자는 더욱 증가하여 중국의 경제성장에 큰 보탬이 되고 있으며 각국에 흩어져있는 화교들이 경제적 파워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세계화교수는 1백30여개국에 5천5백만명 정도로 이들이 아시아(91%), 미주(6.3%), 유럽 및 오세아니아(1.1%)등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동자산만도 2조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국가연합 (ASIAN)에서는 전체인구의 6%에 불과한 화교가 역내자본의 70%이상을 주무르고 있는 숨은 실세이다.

아홉째, 중국은 세계 3위의 산업재산권 다출원국

중국은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산업재산권 다출원 국가로 급부상하였다. '97년말 기준으로 출원현황을 보면 특허 33,666건, 실용신안 50,129건, 의장 30,413건, 상표 140,253건으로 합계 254,461건이다.

이중에서 우리기업들이 중국에 출원한 것은 특허 1,919건, 실용신안 56건, 의장 108건, 상표 1,070건이 되며 합계 3,153건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우리의 對 중국 출원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증가세는 계속 이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열째, 권리가 불완전한 상품에 대해 위조·해적행위 심각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중국인들이 "물건 그 자체"에 관심을 가졌으나, 최근에는 "어떤 제품인지" "어느 상표인지"에 관심을 가지는 고급소비계층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겨냥한 위조상품의 제조·유통행위도 활발하다.

중국은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를 개정·보완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여 나가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의 지식재산권제도를 충분히 이해·활용하여 침해를 당하는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하겠으며 침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I. 중국의 産業財産權 현황

고대의 중국은 과학기술과 발명분야에서도 오랫동안 세계의 선두를 차지했다. 중국의 고대과학기술 성과 중에 특별히 강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남침」,「화약」,「제지」,「인쇄술」 등의 4대 발명이다.

이 4대 발명은 고대 중국의 가장 중대하고 대표적인 과학기술 성과이면서, 세계문명에 이바지한 걸출한 과학기술 공헌이기도 하다.

그러나, 6세기 이후부터 중국봉건사회의 점진적인 쇠락과 서구 자본주의의 신속한 발전으로 중국은 정치·경제뿐 만 아니라 과학기술에서도 우위를 상실하여 과학기술의 후진국으로 전락해 버렸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 낙후된 과학기술의 기초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문화혁명 중에 과학연구기관들과 연구원들은 많은 탄압을 받아 오히려 뒷걸음을 쳐나갔다. 그 이후 중국은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과학기술사업을 크게 중시하였으며 동 사업의 전문적인 책임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신설과 동시에 각종 장려 정책을 펴 나갔다. 그 결과 중국과학원과 국무원 각 부문 소속, 지방 현 이상 소속의 독립된 과학연구기관, 민협(民協)연구개발기관등 약 4만여개에 1천만명 이상의 과학기술인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개혁개방 정책으로 시장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엄청난 상품이 생산 유통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에 힘입어 특허와 상표같은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산업재산권 출원 또한 해마다 높은 증가세를 보여 최근에는 산업재산권 출원이 25만건을 돌파하였다.

1997년도 중국에 출원된 건수는 총 254,461건으로 특허 33,666건, 실용신안 50,129건, 의장 30,413건, 상표 140,253건이다. 이는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출원건수이다.

<표 1> 1997년 4권 기준출원현황

구분	건수	비율(%)
특허	33,666	13.2
실용신안	50,129	19.7
의장	30,413	12
상표	140,253	55.1
(계)	254,461	100

자료:중화인민공화국 전리국 1997년도 보고서

<표 2> 1997년 10대 다출원국가 (외국→중국)

구분	1	2	3	4	5	6	7	8	9	10
국가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네델란드	이태리	스웨덴
계	14,251	11,899	3,901	3,153	1,997	1,967	1,377	1,069	865	631
특허	5,263	6,931	2,059	1,919	595	877	666	585	325	377
실용신안	42	64	16	56	4	3	4	2	7	2
의장	614	1,400	153	108	103	136	97	83	53	34
상표	8,332	3,504	1,673	1,070	1,295	951	610	399	480	218

자료:중화인민공화국 전리국 1997년도 보고서

이중에서 내국인의 출원이 208,648건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출원은 45,813건으로 18%가 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내국인 출원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7년에 외국에서 중국에 출원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국가별 순위는 미국이 14,251건으로 1위이며, 일본 11,899건으로 2위, 독일 3,901건으로 3위이며 한국은 3,153건으로 4위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상표를 제외하고 특허, 실용신안, 의장만을 기준할 경우 일본이 1위이며 미국이 2위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출원은 5년전인 1993년에 4권 기준으로 450건 수준이였으나 1997년도에는 7배가량 증가한 3,153건이 되었다.

그리고, 1997년도 외국인이 중국에 출원공개한 건수를 기준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주)가 단연 1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표 3> 1997년 출원 공개건수기준 10대 외국기업 (특허분야)

순위	국 별	기업명칭	수 량
1	한 국	삼성전자(주)	861
2	일 본	마쓰시타전기(주)	623
3	미 국	소니	393
4	네델란드	모토로라	382
5	독 일	필립전자(주)	323
6	일 본	시 멘 스	293
7	독 일	미쓰비씨전기(주)	255
8	독 일	B A S F	254
9	일 본	히 타 찌	241
10	일 본	산요전기(주)	226

자료:중화인민공화국 전리국 1997년도 보고서

발특9902

〈38p에서 계속〉

이처럼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권리독점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권리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원만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은 이 분야의 핵심과제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주요 기술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기반이 취약하고, 기술 공급자 보다는 기술 수요자로서의 입장이 강한 현실을 고려하여, 초창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비즈니스 방법 출원의 특허화를 가급적 억제하고, 관련 업계의 정보 마인드 향상과 관심 제고 등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특허권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향후, 새롭게 전개될 가상 공간에서의 특허전쟁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참고문헌]

[1] ["Internet and Intellectual Property", 1998]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 & Dunner, LLP, 1998

[2] [Fred Warshofsky, 1994] "The Battle to Own the World's Technology" John Wiley & Sons, Inc., 1994

[3] [Roger E. Schechter, 1995] "Selected Intellectual Property And Unfair Competition" WEST PUBLISHING CO., 1995

[4] [Donald S. Chisum, 1987] "Elements Of United States Patent Law, 1987

[5] ["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특허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1998

[6] 전자신문, 10. 30 기사 참조

[7] 조선일보, 11. 2 기사 참조

[8] ["A Computerized Business Mathod Is Patentable Subject Matter", 1998] Robert C. Scheinfeld and Lawrence T. Kass, New York Law Journal, 1998.